

사회서비스 키워 일자리 49만개 만든다

정부가 취약 계층에 대한 상담·돌봄·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어엿한 산업으로 키워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복지를 늘리면서 일자리까지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취업 희망자들이 지난 5월 광주 서영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로드쇼'에서 게시판에 있는 고용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퍼주기 식보다는 고용창출형 복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주일보 자료 사진)

사회서비스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정신·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늘어난 일자리(81만 명) 가운데 70%가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것일 만큼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 여건 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이 분야를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의 공급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을 제2조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업은 창업기업 지원자금, 청년창업진흥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업 관련 광·콘텐츠 등의 경우처럼 산업특수 분류로 지정, 내년부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즉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휴먼예금이 민간기업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규모 (단위:명)	구분	'12년	'17년	증감
돌봄서비스	노인	294,735	442,767	148,032
	장애인	28,322	50,877	22,555
	유·이동·청소년	315,302	362,916	47,614
	기타	52,024	55,546	3,522
사회참여지원	지활	71,567	88,917	17,350
	노인	267,041	452,000	184,959
	장애인	17,488	59,851	42,363
	기타	760	1,280	520
상담	건강관리	7,255	12,827	5,572
	전달체계개선	5,600	7,215	1,615
	문화서비스	-	5,468	5,468
	환경 및 산림	17,337	26,853	9,516
주거지원	환경 및 산림	8,848	13,551	4,703
	주거지원	712	982	270
계	1,086,991	1,581,050	494,059	

정부 사회서비스업에 창업자금 융자·세제 혜택

2017년까지 노인·장애인 재활 돌봄 사업 확대

요양보호사·상담사 임금체계 등 처우 개선도

자 중심으로 바꾼다. 사회서비스 기관(공급자)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도 촉진,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전체 규모를 키우자는 취지다.

새로 도입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원칙적으로 지정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하고, 발달장애사

비스 등 기존 사업도 등록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사회서비스업의 진입 장벽도 낮춘다.

소득에 따라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을 차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예산)을 들여 실행하는 사회서비스의 절대 규모도 키운다. 기존 완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등의 대상을 늘리고 정신건강 지원·위기청소년 지원·문화복지 접근성 개선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 지원을 확대한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정부는 순수하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지금보다 49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업이 고용률 70% 달성의 주축이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기관·자활센터·어린이집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2017년까지 1500개의 사회적 기업과 3만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상담사·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체계,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인정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적 기반을 마련,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연남뉴스

취업자 증가폭 두달만에 30만명대 회복

6월 고용 동향... 청년층 실업률 7.9%로 악화

올 들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만에 3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반면, 20~3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54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 명 늘었다. 증가 인원은 지난해 10월(39만6000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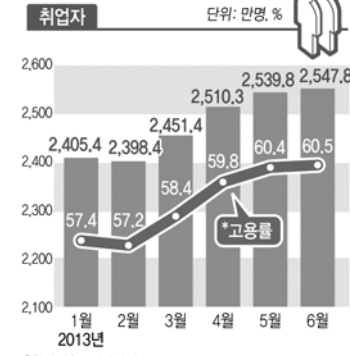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32만 2000명, 2월 20만1000명, 3월 24만 9000명, 4월 34만5000명, 5월 26만 5000명 등을 오르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줄고 50대와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늘었다.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5000명 줄었다.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30대도 2만3000명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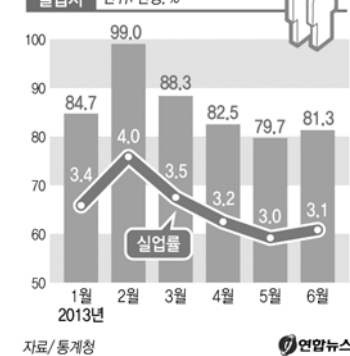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도 1만1000명이 줄었다. 5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보다 26만9000명이 늘어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도 15만1000

취업자·실업자 추이



실업률 추이



자료/통계청

6월 고용 동향... 청년층 실업률 7.9%로 악화된 것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고용률은 60.5%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1.6%로 지난해와

같았고 여자는 49.9%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최대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의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8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00명 줄어든 10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갔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9%로 같은 기간 동안 0.2%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명·9.6%), 제조업(9만6000명·2.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만4000명·4.8%)의 고용이 개선됐다.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3만6000명·-8.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5000명·-3.4%)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1842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9만7000명(2.8%) 늘었다. 상용근로자(59만3000명·5.3%)와 일용근로자(1만7000명·1.0%)는 증가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수도권 27만6000명 취업할 때 전남은 1000명

2011년 지역별 고용 양극화

취업난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지역별 산업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2017년까지 1500개의 사회적 기업과 3만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상담사·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체계,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인정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적 기반을 마련,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연남뉴스

보였다.

2010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각각 10만1000명, 13만4000명, 2만7000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북과 강원, 제주는 전년대비 취업자가 오히려 9000명, 1만2000명, 6000명 줄었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2만4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노인들 소금 섭취 많고 영양은 결핍

국대 노인들이 영양 부족이 심각한 하고 있었다. 특히 여자노인은 35.9%가 열량 섭취가 부족했다. 단백질, 인, 칼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의 경우 조사 대상 노인의 50% 이상이 평균필요량 미만을 섭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칼슘과 리보플라빈 결핍인 노인은 70%가 남았다. 열량뿐만 아니라 칼슘, 철, 비타민A,

2011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서울(7만6000명), 경기(16만 명), 인천(4만명) 등 수도권은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전남(1000명), 광주(6000명), 제주(8000명), 강원(8000명) 등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경북은 3000명이 감소했고, 부산과 대구는 취업자 수가 제자리걸음이었

다. /이종행기자 golee@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평균필요량 미만인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15.6%였다. 남자는 11.1%, 여자는 18.6%가 영양섭취부족자에 해당했다.

영양부족이 심각한 노인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많았다. 소득을 4분위로 나뉘었을 때 최고소득층의 영양섭취부족 비중은 13.3%이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최저소득층은 18.9%가 심각한 영양부족 상태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 영광 → 어등산골포장 →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횡열린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원 : 0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상가건물 매 28억(보2.8억/월1,600만)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5억(보2.8억/월810만)
- ▶지산동 5층 사무실 건물 16.5억(보2억/월800만)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 ▶니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3,165㎡ 포함) 3.5억
- ▶신원동 최고용지 생산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 10억 월 1,200만
- ▶전남 니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포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전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외부동산컨설팅,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상가 주택임차에서 영도, 동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동구 중앙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광산구 윤남동 2층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75억 최저가35억5천만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69억9천만 최저가44억8천만

단독주택

- ▶서구 화정동 2층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광산구 송정동 2층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공장및창고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 사무실 토지3279㎡ 건물1560㎡ 감정가4억7천만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례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치 탁시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재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로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9천만원**

자세한 문의로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개간완료된 임야
곡성군 율곡면 죽리리 관리지역 통영IC에서 15분거리 도로점입)25,700㎡ 매가1억9천, 개간완료 및 토질 좋음(과수원, 양초, 기능동 작물)

저렴한 전시판매장
주월동 상가점포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대지 512㎡ 건물560㎡ 매매가7억9천(기구, 전자, 자동차, 아웃도어 등)전시판매장 최적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